

목회자유가족에게 3,400만원 장학금 전달

목회자유가족돕기운동본부, 2015년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

목회자유가족돕기운동본부(회장 김진호 감독)는 2015년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지난달 11일 감리교본부 교회에서 갖고 유하린 학생(수원대)을 비롯한 17명에게 총 34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김진호 감독은 “매년 상·하반기 각각 15명에게 전달했었는데 이번에 두 명 더해진 17명에게 전달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20명, 그 이상의 학생들에게 전달 수 있도록 부지런히 일하겠다”고 다짐하고,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을 잇고 어머니께는 효도를 다하는 자녀들이 되라”고 당부했다.

곽솔대 학생(간신대 4학년)은 감사편지를 통해 “초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동안 운동본부와 예수지랑 사모선교회의 기도와 후원으로 대학 졸업까지 한 학기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감사를 전한 뒤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타인의 필요



를 채우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배로 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전달식에 앞서 열린 감사예배에서 감독회장 전용제 목사는 “네 가진 것이 무엇이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과부의 기름 그릇이 마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며 “목회자 유가족

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돌보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라”고 격려했다. 또 “목회자 유가족을 돕는 일은 감리회, 제도권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있고 이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고 나원영 목사의 아내 전병숙 사모는 예자회 선교센터 건축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2015년 첫 번째 소모임

“생명을 살린 가족의 얼굴을 그려봅시다!”



(제)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는 지난달 21일(금) 오후 7시 서울시청 시민청 워크숍에서 뇌사 장기기증인의 유가족 모임인 모녀패밀리 소모임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

는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32가족, 58명이 참여했다.

지난 2013년부터 뇌사 장기기증인 예우사업의 일환으로 모녀패밀리 소모임을 진행해 온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21일, 2015년 첫 소모임을 진행했다. 그동안 진행해 온

소모임에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쉽사리 이야기하지 못했던 장기기증에 관한 이야기들을 털어놓으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소모임에서는 장기기증의 사연을 이야기하는 시간과 함께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먼저 떠난 기증인들의 얼굴을 가족들이 직접 그려보는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이번 기증인 초상화 그리기 프로그램은 그동안 치유의 그림 그리기로 아픔과 상처를 받은 사람이나 장소들을 위로해왔던 신주옥 작가가 함께했다.

신주옥 작가가 기증인들의 사진을 바탕으로 스케치를 하고, 가족들이 채색을 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한 가족들이 완성한 그림은 9월 8일 독점유원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시되어 장기기증의 소중한 가치를 알릴 예정이다.

평기총 서부지역회, 광복70주년 기념행사

시민·목회자·정치인 등 각계인사 6백명 참석

평택서부지역광복70주년기념행사준비위원회(회장 윤봉기 목사)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달 12일(수) 저녁 7시30분 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 1531 평택서부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공개광 평택시장과 대회장 윤봉기 목사 등 평택서부지역 목회자와 시민 등 정치, 종교, 문화, 노동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 뛰는 우리 조국’이란 주제로 이호 교수를 초청하여 제70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평택서부지역의 정치, 종교, 문화, 예술, 금융, 노동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개최한 이번 행사는 평택 서부지역의 광복 이전세대 23명, 현재 이 지역을 이끌어가고 있는 23명, 평택서부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다음세대 24명 등 70인을 선정하여 무대로 입장했다.

무대에 오르는 동안 사회자가 전 KBS 아나운서 박순례(1936년생)씨가 당시 일본인에게 겪어야 했던 만행을 고발하는 내용을 낭독했다. 이어 선물 증정식을 갖고 학생들



로 구성된 다음세대와 지금 평택서부지역을 이끌어가는 현재세대가 광복세대에 감사와 존경과 사랑을 담은 꽃다발과 선물을 전달했다.

계속된 행사는 국민의례로 국가에 대하여 경례’와 애국가 제창’ 후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공개광 평택시장과 지역대표 류동형, 이계석, 여성대표 유순하, 학생대표 김지혜 씨가 등단하여 공개광 평택시장의 선창으로 태극기

를 들고 대한민국 만세삼창이 있었다. 강연에 앞서 공개광 평택시장의 인사말과 프로브라스 앙상블, 정보람 무용단, 경미숙 공연 등으로 각종 뜻 깊은 축하의 음악과 순서를 마친 후 이호 교수가 60분간에 걸쳐 강연을 했다.

대회는 끝으로 우리가 다짐해야 할 남동문 남동후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 대한민국’ 등 합창으로 제70주년 광복절 기념행사를 모두 마쳤다.

기독교대안학교 우수교육사례 수기공모전

아세아연합신대 주최, 대상에 소명중고등학교 수상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총장 김영욱 박사)는 지난달 13일(목) 경기도 양평캠퍼스에서 ‘제1회 기독교대안학교 우수교육사례 수기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6월 1일부터 동월 30일까지 진행된 이번 수기공모전은 동 대학 기독교교육상담학과에서 대안학교 우수교육사례를 발굴하여 함께 공유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총 12개 학교에서 30여명의 교사와 학생이 참여하였다.

심사를 맡은 기독교교육상담학과 김준수 교수는 “참여자들의 수기 속에서 학생들을 위해 눈물과 기도로 씨름하고 있는 교사들



의 헌신적인 모습과, 기독교대안학교 교육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심사평을 전했다.

총장상(대상)은 소명중고등학교 정승민 교사와, 꿈의 학교 이나영 학생이 각각 차지하였으며, 이외에도 우수상 4명, 장려상 8명 등 총 14명의 교사와 학생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한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는 이번 수기공모전 수상자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수기집으로 발간하여 기독교대안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장총, 필리핀 바세코판자촌학교 신축 지원

네팔재해 지역 방문, 교회개축 지원금과 의류도 전달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황수원 목사)에서는 지난 8월 17일(월) 필리핀 바세코에서 사역하는 브랑엄인터내셔널대표 신승철 선교사를 후원하여 세계선교공동체 기독교학교 기공예배를 드렸다.

바세코지역은 마닐라에 위치한 거대한 판자촌으로 세계3대 빈민촌 중에 하나이며 행정구역상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지역으로 큰 화재 이후에 비로소 행정구역에 등재한 바가 있는 빈민촌이다.

이번학교 신축 책임자 신승철 선교사(브랑엄인터내셔널 대표)는 “세계선교공동체 기독교는 2001년 유지원으로 시작하여 2011년 초등학교 인가를 받고 초등학교 5학년까지 운영하고 있고 2016년에는 고등학교를 시작할 계획 중에 있다”는 포부를 밝혔다.

기공예배에 참석한 황수원 목사는 “바세코에 직접 가 보니 우리나라의 6.25의 참화 이후에 선교사들의 복음전파, 그리고 외국의 따뜻한 원조에 의해 초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성장하여 인재들이 양성되었고, 이제는 세계 속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



었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성경말씀을 명심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신축기공예배 후에 한장총 임원들은 무료급식제공봉사활동에 참가하여 300여명의 아이들에게 점심식사를 나누어주었으며, 아미파선교지역(이현호 선교사)으로 이동하여 전도집회를 주관했다.

또한 한장총 네팔재해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송태섭 목사)에서는 지난달 24일(월)부

터 27일(목)까지 네팔 재해 현지를 방문하여 재해로 무너진 교회 개축 지원금을 전달하고 물품으로 의류 200벌을 전달하였다.

네팔 카트만두 지역에서 사역하는 김정근 선교사(예장통합파송)에게 다딩교회 개축지원금으로 1,500만원을 전달하고 의류를 전달한 바, 지원금에는 지난 7월 10일 ‘장로교의 날’ 예배 한글 전역을 사용했다고 위원장 송태섭 목사는 밝혔다. 한장총에서는 송태섭 목사, 박하섭 장로(예장통합 부총회장), 조성제 장로(한장총 회계)가 방문했다.

세기총 사무실 개소, 세계복음화 안정적 토대 마련

새로운 통합과 도약 기회로 삼아 교회부흥에 매진 다짐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세기총)는 올해로 창립 37기를 맞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전 세계의 한인디아스포라를 하나로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복음 선교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달 18일(화) 오후 4시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 사무실(서울 종로구 숭인동 소재)에서 오픈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로써 세기총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사역해 온 한인교회와 기독교기관 및 단체, 선교사회 등 주님 안에서 형제 된 750만 한인디아스포라를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됐으며, 특히 전 세계의 복음 확장을 위한 안정적인 장을 펼 수 있게 되었다.

이날 1부 예배는 서울장신대학교 이사장 고시영 목사의 사회로 통합포서선 증경총회장 원종문 목사의 기도 후,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 서기 이진태 목사의 성경봉독, 세



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 초대대표회장 박위근 목사의 ‘우리가 번성하리로다’라는 제목의 설교 후 기독교대한성경교회 증경총회장 조일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는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의 인사말이 있은 후 한국교회연합 직전대표회장 한영훈 목사의 격려사, 뉴욕교회협의회 대표회장 이재덕 목사의 축사에 이어 총사업 본부장 김정훈 목사가 카니발(인승)을 세기총에 기증하고, 사무국장 신광수

목사의 광고와 헌반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는 “지난날 교회가 분열의 시대를 청산하기 위해, 남을 탓하기 보다는 내 눈의 들보들 빼내고, 재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통회와 자복하며 엎드려야 한다.”며 “대한민국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 사무실 오픈 감사예배를 통해, 한국민의 새로운 통합과 도약의 기회로 삼고 겸허한 자세로 교회의 부흥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했다.

총신대 제6대 총장 김영우 목사 취임

길자연 총장 이임

총신대학교 제6대 총장 김영우 목사의 취임예배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총신대 사당캠퍼스 제1종합관 대강당에서 교단(예장 합동)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안병환 목사(제단이사장 직무대행)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유병근 목사(목회대학원장)의 기도, 유선보 목사(운영이사)의 성경봉독, 김준구 목사(증경총회장)의 설교, 길자



연 직전 총장의 이임사, 취임 서약, 격려사 및 축사, 신임 총장 취임사, 송춘현 목사(운영이사장)의 축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영우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무엇보다

이 학교가 역사적 개혁신학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며 “또 규모나 내실 면에서도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다해 섬길 것”이라고 했다.

제3회 목회자 부부 하기수양회 개최

(사)한국성서성결운동본부

사단법인 한국성서성결운동본부(이사장 최종대 목사, 본부장 이상수 목사)는 지난달 3일부터 6일까지 경북 상주시 화서면에 있는 BTJ열방센터에서 ‘여호와께 성결’이란 주제로 40여 명의 목회자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수양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수양회에는 동 본부와 형제교류 협약을 맺은 기독교한국성결회 목회자 부



부들이 함께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매일 오전 시간은 ‘소통’이란 주제의 세미나를 통해 회원들의 지질향상을 꾀하는 한편, 오후시간

에는 회원 친목을 위한 프로그램을, 저녁시간에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 기독교한국성결회 감독 고병수 목사가 말씀을 증거했다.

갈보리교회 창립11주년 예배

광복70주년 기념예배도 함께 드려

갈보리훈련원(원장 권오덕 목사)은 지난 8월 15일 오전11시 양재동 갈보리교회에서 갈보리교회 창립 11주년 및 광복 70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고 교회장립 및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

권오덕 목사는 기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내려주신 은총을 우리 민족이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 앞에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심을 믿고 생명 다하

는 날까지 사명을 감당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예배에는 이병희 목사(교단 총무)의 사회로, 백요한 목사(예장교회)의 기도, 이선 목사(백석실천신학대학원 원장)의 북12:29-31절을 본문으로 한 ‘너희에게 더하시라’라는 제목의 설교, 이병희 목사(남대영기도원)의 광복절 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월례회 및 수양회, 하나되는 시간 가져

강원동지방회

강원동지방회(회장 유홍열 목사)는 지난 달 24일과 25일 열린교회에서 8월 월례회 및 1박2일 수양회를 통해 지방회가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배는 진장길 목사의 사회, 최정희 목사의 기도, 지방회장 유홍열 목사의 설교 이종진 목사의 헌금기도, 김용덕 목사의 축도로 드러졌다.

유 목사는 설교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에 바로 서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의 징조를 보면서 분별하며 충성을 다하라”는 말씀을 전했다. 이밖에도 총회 실행위원회 소식을 회원들에게 알렸다.

2부는 동강으로 이동하여 래프팅을 하며 동강의 아름다운 풍경과 더불어 서로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구렁에 맞추어 노를 저어 속도를 내기도 하고, 급류를 만나면 어린이가 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하는 등 마음이 하나 되는 단절된 모습을 보였다.

또한 마음에 있던 생활의 스트레스를 잊고 마음과 몸이 자연을 통해 치유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월례회, 지방회 회원들의 화합과 단합 다짐

경기동남지방회

경기동남지방회(회장 김남수 목사)는 지난 8월 18일(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당하리 소재한 밝은빛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지방회 월례회 모임을 가졌다.

회의에 앞서 드린 1부 예배는 지방회장 김남수 목사 사회로 시작되어 정세창 목사(안성 은혜교회 담임)의 대표기도, 지방회 전체 전도사 일동의 특송, 증경회장 최병일 목사(신항제 일교회 담임)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최 목사는 출 1:1-7 말씀을 본문으로 요셉으로 인한 하나님의 섭리와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말씀으로 지금도 준비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돌보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함으로 회원들에게 큰 감동의 시간이 되었다. 이어 표현자 목사(시냇가에심은나무



교회 담임)의 헌금기도, 증경회장 이규호 목사(순복음동산교회 담임)의 축도로 예배순서를 모두 마쳤다.

2부 순서로 지방회장 김남수 목사의 인도로 지방회 회무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제

무 및 총무보고와 지방회 회원들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하나가 되고 서로 서로 사랑하는 지방회가 될 것을 다짐했으며, 서로 하나가 되어 주의 성찬을 떤는 마음으로 오찬을 나누고 모든 행사를 마무리했다.

여행 통한 휴식과 단합의 아름다운 교제 나눠

영동제일교회, 2박 3일 제주도 여행

영동제일교회(담임 김용덕 목사)는 지난 달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 좋은 추억 만들어요!’라는 주제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

제주도 일대를 돌아본 이번 여행을 통해 영동제일교회 성도들은 천혜의 섬 제주를 둘러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휴식



을 통해 단합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제주도 순복음예수나라교회 침례식 거행

부활의 약속과 소망 가진 새사람으로 태어났음을 고백

제주지방회



제주지방회(회장 김건수 목사) 제주도 순복음예수나라교회(담임 김건수 목사)에서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온전한 신앙 고백을 통해 주님께 순종을 결단한 12명에 대한 침례식이 지난 달 23일(주일)에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객지해수욕장에서 있었다.

예수그리스도의 공생애 시작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음으로 시작되었고(마3:16) 공생애 마무리도 승천직전에 아버지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마28:19)는 명령을 끝으로 하늘에 오르셨다.

물속에 잠김으로 첫 아담에 속했던 지옥 갈 죄인의 신분이 옛사람은 예수그리스도의



심자가 죽으심과 연합하여 물 속에 장례 치르고 물위로 올라옴으로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영원한 부활의 약속과 소망을 가진 새사람으로 태어났음을 못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고 선포했다.

이날 침례를 받은 12명의 영혼들은 주님의 지상대명인 침례명령에 겸손히 순종함으로써 예수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자가 되었다.

월례회,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 교회

인천지방회

인천지방회(회장 심현일 목사)는 지난 달 25일(화) 오전 11시 예수사랑순복음교회(담임 한정숙 전도사)에서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이창모 목사(인천국제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홍영관 목사(은혜와사랑교회)의 대표기도, 예수사랑순복음교회 담임 한정숙 전도사의 설교로 이어졌다.

한 전도사는 창 12:1-4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회계 박미정 목사(주안복된교회)의 헌금기도와 회장 심현일 목사(인마누엘순복음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에서는 서기 송준호 목사(순복음사랑의교회)의 회원점명을 시작으로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이후 예수사랑순복음교회

에서 정성으로 준비한 족발과 보쌈을 함께 나누며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사랑의 교제 시간을 가졌다.

월례회, “우리의 자랑은 복음이 되어야 한다”

대구경북지방회

대구경북지방회(회장 신재영 목사)는 지난 달 24일(월) 오전 11시 동해안순복음교회(담임 도평수 목사)에서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정진학 목사(태전사랑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회계 장동근 목사(순복음예정교회)의 대표기도, 서기 김광동 목사(인마누엘교회)의 성경봉독에 이어 지방회장 신재영 목사(새김전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신 목사는 롬 1:16의 말씀을 본문으로 ‘자랑’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을지라도 부끄럽지 않은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자랑이 복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자랑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대구경북지방회 목회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이어서 재무 윤철희 목사(행복한순복음



교회)의 헌금기도와 증경회장 강태진 목사(안동성곡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신재영 목사의 인도로 서기의 회원 점명과 실행위원회 전달사항과 회계의 회계보고와 기타 안건처리를 끝

으로 증경회장 진영갑 목사(구미주산양교회)의 기도로 월례회를 마쳤다. 지방회원들은 장소를 옮겨 동해안순복음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나누며 친목을 도모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짐으로 모든 일정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마무리했다.

월례회, 목회 사역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영남동지방회

영남동지방회(회장 오경덕 목사)는 지난 달 18일(화) 오전 11시 연양순복음교회(담임 황용식 목사)에서 8월 월례회를 가졌다.

월례회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총무 권점식 목사의 사회, 부회장 이성석 목사의 기도, 지방회장 오경덕 목사의 설교, 서기 신희섭 목사의 헌금기도로 진행됐다.

오 목사는 시 16:1-6을 본문으로 ‘목회와 관계’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목회자의 사역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월례회에서는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지방회 어려움을 당한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단의 안정과 부흥 발전을 위해

서 기도했다. 월례회를 마친 회원들은 연양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대과와 식사를 함께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월례회 및 야유회, 교제와 화합 다져

전북지방회

전북지방회(회장 최병진 목사)는 지난 달 17일(월) 전남 보성 울포해수욕장에서 월례회 및 야유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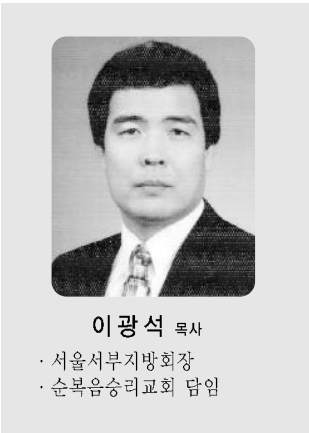
회원들은 회의에 앞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단과 교회, 지방회를 위해 함께 기도한 뒤 곧바로 이어진 월례회는 지방회장 최병진 목사 주재 하에 시작하여 증경회장 김중호 목사의 기도, 총무 김상운 목사의 총무보고, 회계 최경욱 목사의 회계보고를 받고, 기타 안건을 원활히 처리했다.



2부 순서로는 보성늑자발 방문과 해수사 회정보를 나누었으며 교제와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가졌다.

■ 생명의 말씀 ■



이광석 목사

· 서울서부지방교회장
· 순복음승리교회 담임

누명을 씌운 음부에게 한마디의 변명을 하지 않음은 물론 법정에서도 음부의 행위를 입 밖에 내지 않고 묵묵히 감옥에 들어가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죽음을 모면했지만 죽음보다 더욱 몹시러치는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생이별, 가족과 가정을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절망은 어린 요셉에게는 견딜 수 없는 죽음 앞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최악의 아픔을 가슴에 지고 있음에도 애굽에 양식을 구하려고 찾아온 형들의 악행을 “하나님의 의도나 형님들은 두려워 마십시오.” 하는 요셉의 모습은 인간의 모습으로 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1. 그 사랑의 고백은 좁은 문 앞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반석은 십자가

(마 7:23-29)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 7:13-14)

누군가를 사랑하며 용서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이 듭니다. 어쩌보면 사람의 한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생명을 얻고 반석을 향한 걸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좁은 문은 우리의 한으로 들어가기 불가능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 성령의 약속을 찾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 그 약속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 7:11)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결실에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린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과 7장은 오늘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는 반석을 향한 길입니다.

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사랑으로 말미암은 결실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길에 서려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 7:7-8)

가슴으로 구하고 손과 발로 찾고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는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감각을 누리려면 성령님과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 성령님과의 관계의 조건을 고전 12:31에서 사도 바울이 그 길을 제시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제일 좋은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그 길은 고전 13:4-7까지의 사랑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더욱 큰 은사’입니다. 또 제일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이신 영생의 길입니다.

3. 그러기에 더욱 큰 은사는 우리에게 자유와 유익을 얻게 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연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고전 13:8)

종교인들이 행하는 인내와 용서와 사랑

그리고 관용 등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면 나름대로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지는 상황 일뿐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허한 마음만 그들의 가슴에 가득할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랑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도 생명의 길이 되는 사랑의 주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 이름을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은사의 길은 성령님으로부터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은사 중에 가장 귀한 우리가 누려야 할 은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랑이 은사로 주어진다 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래 참는 은사 교만치 않는 은사 성내지 않는 은사, 믿어주는 은사, 건디어주는 은사 등등 모든 사랑의 은사가 주어지면 예수님 같은 모습 일텐데요. 얼마나 기쁨이 넘쳐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주렁주렁 열려 있어서 많은 이들이 와서 성령의 열매를 얻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사랑을 하는 만큼 지경은 넓어집니다. 사랑의 행동거리 만큼 자유함이 있습니다. 사랑의 깊이 만큼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위로 오르셔서 안식을 잃어버린 죄인들을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오늘 우리가 저야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우리의 잃어버렸던 안식을

회복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반석은 예수님의 타전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16:24)

모세가 왕궁을 포기한 것처럼 성도님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기때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려고 오늘날도 성도님들은 사랑을 실천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죽음에 걸임에도 성도님들은 그 죽음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비율 사도가 죽음의 예루살렘으로 스스로 갔듯이 죽음이 기다리는 로마를 그리워 했듯이 우리 성도들이 결어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랑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르신 길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좁은 문입니다. 사랑은 좁은 문입니다. 사랑의 넓이만큼 우리에게 자유와 영생이 있습니다. 좁은 문은 사랑으로만 열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넓이만큼 좁은 문은 열립니다. 사랑만이 영생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보시다. 십자가 위에서는 모든 것이 잘 보입니다. 십자가는 들려야하기에 높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이 들렸기에 우리도 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길은 우리 모두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우리의 반석은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동 정

백석대 부총장에 이재전 前CBS사장



학교법인 백석대학교(총장 최갑중)는 지난달 21일 이사회를 열고 CBS 이재전 전 사장을 백석대학교 대학원 특임부총장에 임명했다. 이재전 부총장은 CBS 공채 기자로 입사해 36년간 재임했다. CBS 보도국 국장, CBS 사장, 한국방송 협회 부회장, 19대 세계한인기독교방송 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기원 논쟁의 입증 진화론자들에게



지난달 29일 지적설계연구회(회장 이승엽 교수) 주최 ‘생명과 우주 기원’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22회 지적설계 심포지엄에서 문준호 박사(KAIST 스마트IT융합시스템연구단)는 ‘기원 논쟁의 주요 이슈 : 신다윈주의적 진화론에 대한 비평적 검토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햇빛트리니티 총장 이정숙 박사



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제5대 총장에 이정숙 박사가 취임했다. 이 신임 총장은 지난달 27일 햇빛선교센터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면서 “말려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신학 교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SAVE9 여름 캠프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보부장 박진택 목사)는 지난달 20일부터 1박 2일 동안, 전국의 대학생 장기 기증홍보 대사 ‘SAVE9’ 34명과 함께 여름캠프를 진행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대학생 장기 기증 홍보대사 ‘SAVE9’은 지난 6월 발족식을 시작으로 각종 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번 캠프를 통해 대대적인 장기 기증 캠페인을 펼쳤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성의 상품화가 인간의 존엄이고 인권인가?

지난 11일 앰네스티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60개국, 400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해서는 안 되며, 성매매 당사자, 알선업자 등 관계자 모두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앰네스티는 2년여에 걸친 논의와 연구 끝에 성매매 종사자들의 위험을 줄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면적인 ‘비범죄화’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며, 강제적인 성매매와 인신매매, 미성년자 성매매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한다.

국제 앰네스티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행동

하는 국제인권단체이다. 국제 앰네스티는 비정부기구(NGO)로서, 국제·인종·신앙 등의 그 어떤 차이도 초월하며,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경제적 이익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앰네스티의 결성 동기는 1961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자유를 위해 건배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당한 두 명의 학생들에게 7년형이라는 중형이 내려졌을 때, 이에 분노한 영국의 변호사 피터 베넨슨(Peter Benenson, 1921-2006)이 이들의 인권을 변호하기 위해 ‘사면을 위한 탄원 1961(Appel for Amnesty 1961)’ 활동에서 시작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현재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300만 명의 회원 및 지지자들과 함께하는 세계 최대 인권단체로 성장했다.

이러한 앰네스티의 이번 결정에 세계 여성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성매수와 알선업자까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반인권적 결정으로, 오히려 빈곤 국가의 여성들이 성매매로 내몰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4월 9일, 한림재판소(이하 한재)에서 성매매를 한 남녀를 처벌하는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는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의 위헌 여부였다. 2012년 12월 위헌법률심판이 제정된 지, 2년 4개월 만에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된 것이다.

우리 사회는 현재의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성적 방종을 부추기는 사회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앰네스티의 “성매매의 전면 비범죄화”의 결정은 앞으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성매매 특별법 위헌 법률심판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앰네스티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앰네스티는 자기들의 이번 결정을 근거로 하여,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나라 현재의 판결과 입법에 영향을 미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인권단체들과 국내인권단체들은 근래 들어 인권이라는 명분을 빌려서, 각

종 성적 방종과 타락을 부추기는 “성해방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서구사회에서는 이 운동이 정치세력화 연계되면서 법과 제도로 성해방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비판하는 선량한 시민들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혐오범죄자로 몰아 막대한 벌금 부과와 체벌로써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다.

성을 상품으로 하여, 기업화, 산업화된 ‘성매매’는 인권의 문제로 다루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인권은 천부적인 인권을 말하는 것이지, 인간의 타락을 보호하고 부추기기 위한 인권운동은 거짓인권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므로 성매매를 비범죄화 하는 것이 인권을 지켜주는 것도 아닌 것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성(性)을 상품화하는 것을 반대하며, 성이 인간의 타락한 욕망을 채워주는 노리게가 되어서도 결코 안 된다고 본다.

기독교 장묘문화에 부는 신선한 바람!!

1. 기독교 장례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 최근 화장률의 증가(79.6%)로 각 종교단체에서 장례문화의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기독교의 경우 타 종교에 비해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대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장례문화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 한신교회, 성민교회, 강남교회, 지구촌교회, 주님의교회 등 30여 개 교회가 사설납골당에 전용관을 구비하여 교인들을 한데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백** 교회는 우리나라 기독교 교회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2007년 11월 예배당 지하에 1,500기를 봉안할 수 있는 추모관을 설치 운영하여 장례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설추모관내 교회전용관)



(백** 교회 입구 및 내부)

2. 우리는 왜? 추모 시설을 기피할까요?

- 유골의 번질과 부패로 별레가 생기고 냄새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추모관은 혐오 시설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 사설 봉안당의 냄새(방향제)와 산만함만을 생각하십니까?
- 꼭 필요지만 내 주변에 있으면 생활에 불이익을 초래할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요?

3. 우리 교회 추모 시설을 어떻게 짓는다면~~~

- 우리교회 기도원이나 수련원에 있는 추모관이면 좋겠습니다.
- 유골의 부패와 번질 없이 항상 청결하고 깨끗하게 보존되는 추모관이면 좋겠습니다. 추석이나 설날 등에 교인들과 함께 추도에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기존의 사설봉안당과는 차별화된 우리 교회만의 맛을 낼 수 있으며 건축비가 경제적이며 관리운영비가 저렴하면 좋겠습니다.

4. 우리 교회 추모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 종교시설 내 추모관 설치를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어, 우리교회 내 또는 우리교회 기도원이나 수련원에 설치가 용이합니다.
- 교회 건축이나 리모델링 시 추모관도 함께 설계가 가능 합니다.
- 주변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봉안당 조성 비용과 운영자금의 조달을 여러 교회의 신자들과 함께 해소할 수 있습니다.

5. 전용 추모관 건축의 기대효과!

- 개척교회는 교회건축 시 추모관의 선 분양을 통하여 건축비 조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주변 의 새로운 사람들도 전도되어 많이 늘어나 교회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기존 교회는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꾀하고 교인들에게는 좀더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 매력한다면 어찌 교회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 것으로 검토하여 받아들이고 교회를 강건하게 교인들의 삶을 좀더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장묘문화를 잘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타 종교보다 봉안당 인 허가 용이한 수련원이나 기도원이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교회 전용추모관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美空 Space Aesthetics 공간미학



코리아에프엔디 F&D Korea Funeral & Development

본 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23 대표전화 : 1899-1659 / FAX 032)512-0925

목회자 칼럼

서헌철 목사 // 장로교신학 학장, 장신교회 담임

아픈 마음을 헤아 릴 줄 아는 자!

러시아작가 톨스토이의 글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한나라의 임금에 병에 들게되었다. 이에 임금은 ‘내 병을 고쳐 주는 자에게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한 현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취하여임금님이 입으셔야 병이 고쳐진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온나라 원로, 관료, 백성들은 물론 그 나라의 왕자까지도 그 행복한 자를 찾아 나섰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보아도 진정한 행복자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하루는 한 숲을 지나는데 어디에선가 들려왔다. “하나님 감사 합니다. 오늘도 일거리가 넉넉하였고 배도 부르니 이제는 잠을 자는 것 밖에 없습니다”라는 소리가 들려 왔다. 왕자는 자신도 모르게 숲의 한 오두막을 향하고 있었다. 왕자는 병사들에게 그 농부의 속옷을 벗겨 오라고 하였다. 따라서 병사들은 그 농부의 속옷을 벗기려고 달려들었다. 그러나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 농부는 너무나 너무나도 가난하여 속옷마저도 입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돈에 있을까? 명예에 있을까? 명예에 있을까? 지식에 있을까? 이러한 것들이 없을 때에 불편함은

있을 수 있으나 그 것들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써 특히 지도자를 지체하는 이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위치가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그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의식을 비튼 사고 속에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상황에 따라 해바라기식의 변화는 참으로 많은 이들에게 상처만 안겨 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혹이라도 모든 행동의 출발점을 탐심, 성공, 또한 탐욕구 등에 두고 있다면 그 결과는 결코 아름답지 못한 수고로 그치게 될 것임을 자각하자. 따라서 모든 외식을 버리자. 거짓, 술, 멸시함도 버리자.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권력욕, 명예욕, 금전욕, 음욕, 지식욕 등 모든 소유욕을 버리자. 버리지 않으면 진정한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 아니 그보다 더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는 아픈 마음을 먼저 헤아 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힘없는 자, 아픔이 있는 자, 무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자 등을 향한 깊은 애정을 품을 때만이 아름답고 보람된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의 일부 지도자들에게서는 지식 경쟁의 모습만이 보여진다. 어떤 이는 성경의 지

혜를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다른 이는 학문의 목적을 지식을 함양(涵養)으로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인간적 삶을 갖는데 두고 있으며, 또 다른 이는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활용하며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자신의 욕망을 위해 남을 정죄하는 것을 공로로 하나님의 일로 생각한다면 이는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며, 나아가 살인행위와 같은 것이다.

비단 잘못된 것을 수용하라 하지는 않지만 때론 포용함으로 변화의 가치를 창출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하는 바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데 있기 때문이다. 인간다운 삶의 기준은 세칭 훌륭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가졌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급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히 11:24-26)



온선 칼럼

문찬우 목사 // 청담온선교회 담임, Canada Pacific Life Bible College 졸업 (B. A), 호서대 신학박사 (Th. D)

기능과 정신(skill & spirit)

마 23:23



직업이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단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말은 잡(job)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보케이션(vocation)입니다. 이것은 소명(召命)이라고 하는데, 다른 표현으로는 천직(天職)입니다. 사실, 사람이 어떤 직업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은 거의 숙명이라 생각됩니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특정한 일을 하며 수십 년을 지내온 인생만이 아니라,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 분야의 일을 택하여 살아온 삶조차도 자유의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태어났으니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고기잡이를 하든, 농사를 짓든, 글을 쓰든, 돌을 깎든, 자신의 직업에 대해 일종의 종교적인 신념 같은 것을 가진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프로페션(profess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문직이라는 뜻으로, 그 속에는 다분히 ‘돈 받고 하는 일’이라는 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이건 간에 자기 일을 잘하지 못하면 비판을 받게 됩니다. 급여에 걸 맞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도 자신의 대표작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직업에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전문성(professionalism)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는 여러 분야에서 놀랄 정도로 대단한 기능을 지닌 사람들이 속속 등장합니다. 더욱 두드러지는 현상은 뛰어난 감식안과 기능을 지닌 전문가들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나. “저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는 감탄사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이유입니다.

기능적으로 보자면 소명의식이나 도덕성을 운운하던 천직의 시대보다 프로페셔널을 주장하는 자본주의적 시대가 더 뛰어난 인재를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찬란한 프로페셔널과 기능의 시대에 북받쳐 숨어있는 치명적 문제가 있습니다. 기능(skill)의 속도감 있는 발전과 비교할 때 정신(spirit)의 성숙은 급랭이처럼 느리다는 것입니다.

아예 멈춘 듯 보일 때도 있습니다. 법을 기막히게 해석하며 적용하는 천재 변호사가 정의와 진실에 대한 철학이 없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명에게 생명존엄에 대한 성찰이 없고, 기막힌 설교로 사람들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목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니다. 이럴때, 육체와 영혼, 명예와 인격, 기능과 정신의 이원론적 분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모든 사람, 모든 일에는 슬럼프가 다가옵니다.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합계운 시간이지만, 크게 보면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우리의 분리되었던 육체와 영혼, 명예와 인격, 기능과 정신을 만나게 해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단순한 합발이 아니라 고귀한 천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업적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서러운 눈물이 아니라 새로운에 대한 갈망으로 밤을 지새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라도 우리의 직업적 기능이 우리의 고귀한 정신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만 된다면, 고통은 단말마처럼 지나가고 장구한 해산의 기쁨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 놀랍고 새로운 변화를 우리들은 직업의 재편성, 혹은 소명적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목회자의 창

박성건 목사 // (전)2012년~2014년, 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진행 / 그 외 CBS 출연 및 강의 (전) 2008~2010년, 예일여자중학교 교목 / (현) 품파비전교회(인천지파회) 담임



복음과 은사주의

오늘날 복음주의 구원관의 문제는 구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자격이 안 되는 목회자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변질된 복음을 양산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가볍게 만들고 있으며, 갈보리 십자가의 거룩한 사건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은 결코 죄를 가볍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엄하게 다스리시는지를 분명히 보여 줍니다. 마치 중세 시제들이 면죄부를 통해 죄 값을 거래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목회자들 또한 성도들에게 면죄부를 팔고 있습니다.

올바른 복음관이 없는 사람들은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보상받으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접근하는 방식 또한 영적인 부분을 찾기 보단, 육적인 부분을 통하여 손쉽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육신의 경험 외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말은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해보니, 사람들은 자신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물질’을 주십시오. 그리고 건강을 주십시오.’와 같은 기도로 변질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점차적으로 사람들은, 영적 이해가 떨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죄에 대해 무감각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수많은 성도들이 은사주의를 사모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는 목회자의 잘못된 정보와 무지의 책임이 더욱 큼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 주는 것과 그 죄로부터의 구원에 대해 설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의 본질을 설교하고 죄의 본질을 규명하고 죄의 심각성을 밝히며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죄의 다양한 모습을 설명해주고, 죄의 대가가 영원한 형벌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삶과 성령의 전인격적인 사역과 은혜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요사이 많은

목회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은사주의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난 오순절 교단 목사로서 은사주의의 전부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은 물론 개혁신학, 보수신학자들인 ‘번 포이트레스’, ‘고든 피’, ‘웨인 그루렘’ 및 ‘잭 디어’ 등도 은사주의의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목회자의 은사주의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기독교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난 먼저 ‘Sufficiency of the Scripture’, 충분한 말씀의 접근적 노력의 부족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초등학교가 대학교 강단에서 강론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대부분 은사주의를 강조하며 한국교회를 어렵게 하는 목회자들을 보면 검증되지 못한 신학교를 나열하거나, 지식의 부족과 신비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예가 일부 기도원이나 특수지역을 하는 일부 교회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은사주의는 잘못된 품성을 가져오고 목회자를 권위적으로 만드는 특징

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신비주의는 객관적이고, 증명 가능한 사실과는 별개로 영적 현상을 인식하려는 믿음의 체계입니다. 그것은 느낌, 직관 및 다른 내적 감각들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지요 객관적인 자료는 도외시되기 때문에 신비주의는 내부로부터 그 권위를 찾습니다. 예를 들어 목회자 스스로가 권위를 내세우는 것, 성도들에게 목회자의 권위를 강요하는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보수를 요구하기도 하고 대가를 현금으로 포장하여 성도에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목사에 대한 절대적 순종을 강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은사를 목회자가 성도에게 훈련시키는 것처럼 없는 모습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난 오순절 목사로서 오순절주의는 그런 서커스를 행하는 곳이 아니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순절에 관한 지식은 병든 자기만의 ‘자기 신앙(自家信仰)’이란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현상만을 바라보는 교인들의 신앙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현상만 바라보니 근본적 신앙의 접근이 없고, 오직 자신의 목적에 있는 자신만의 신앙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진 신앙이 ‘참 신앙인가?’, 아니면 ‘거짓 신앙인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다 해서 완벽하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과 마음의 감동을 통해 우린 믿음을 갖게 되지만, 종생의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히6:4-6’에 나오고 있는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라는 말씀이 그러합니다. 이는 진리를 ‘경험’한 것이지 ‘확증’한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는 은사주의(은성)와 비록 우리와는 다르지만 개혁주의의 신학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성경을 연구하고 올바른 신학과 신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에게 바른 말씀을 가르쳐야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뜻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혹 찾으시던 제품이 이것이 아닌가요?

열악한 음향환경을 최상의 소리로 만들어주는 V50 V60 마이크 프리

현재의 음향상태를 더 힘있게! 더 명료하게!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 주는 소리에술의 결정판입니다.



마이크 프리 V60

- 목사님 강대상용
- 마이크 인풋, 아웃풋 2채널
- 고음질 마이크 프리 앰프 + 이펙터 Reverb (찬양용 음향효과)



EFFECTOR ON/OFF 스위치 박스

한류를 선도하는 K-pop!!

그 뒤에는 세계적인 Credit Sound사의 제품이 있습니다.

방송국, 공연장, 유명 녹음실에서 사용하는 Q-Box 등은 우리가 만들고 세계적인 음향장비와 겨루고 있는 Credit Sound 사의 제품입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를 돕는 낙원선교센터의 요청으로, 열악한 교회 음향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Credit Sound 사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v50과 v60 마이크 프리는, 출시되자마자 목사님들과 독일 바이어들이 극찬한 제품으로,기능과 성능은 고가로, 가격은 초저가에 형성된 반영구적인 제품입니다.

현재의 음향상태를 최상의 조건으로 향상시켜주는 v50과 v60 마이크프리는 말 그대로 소리에술입니다.



마이크 프리 V50

- 찬양인도자, 찬양사역자, 성가대 마이크용
- 마이크 인풋, 아웃풋 1채널
- 고음질 마이크 프리 앰프 + 이펙터 Reverb (찬양용 음향효과)



특징!

1 최상의 회로설계를 탑재한 마이크전용 프리앰프로써 마이크에 강력한 힘을 제공하여 설교와 찬양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2 찬양할 때 도움을 주는 음향효과기기(Reverb)가 탑재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ON/OFF 스위치를 간단히 조작하여 음향엔지니어 없이도 사용자가 버튼 하나만으로도 간단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음향효과는 프로가수들도 가창시 활용하며 음정처리를 힘들이지 않고 매끄럽게 처리하고 있는 것처럼 본 기기는 이런 음향효과를 누구든 간단하게 쉽게 쓸수 있도록하여 프로에 버금가는 음정 처리를 할 수 있는 최상의 Sound를 제공합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6년도 목사고시 공고

2016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류접수 : 2015년 8월 28일(금)까지
(1) 목사고시 청원서 : 총회 홈페이지(www.aogk.org) → 자료실 → 서식 다운로드 → 교단서식 → 15호 목사고시청원서 다운
(2) 구비서류 : 목사고시 청원서 참조
* 2부 작성하여 1부는 총회 고시위원회에 제출, 1부는 지방회에 보관.
2. 서류접수처 : 150-150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22나길 8 총회본부
3. 서류심사 : 2015년 9월 3일(목) 오전 11시
4. 오리엔테이션 : 2015년 9월 17일(화) 오전 11시 총회본부
5. 성경고시
(1) 논문 대신 성경고시 실시.
(2) 성경고시는 성경암송과 문제풀이로 함.
6. 목사고시 : 2016년 2월 22일(월) ~ 23일(화), 오전 10시 총회본부

7. 목사고시료 : 50만원
(1) 납부일 : 2015년 8월 28일(금)까지
(2) 입금계좌번호 : 국민 061701-04-176864(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8. 목사고시 응시자격 :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목사고시 과목
(1) 구약학 (2) 신약학 (3) 조직신학 (4) 교회사 (5) 교회 행정학 (6) 목회 윤리학
(7) 헌법 (8) 기독교교육 (9) 교회성장학 (10) 면접 (11) 설교 실기(5분)
* 설교는 2부 작성(심사용 1부, 설교자용 1부) 목사고시 당일에 제출.



총 회 장 목사 진등용
총 무 목사 김병목

고 시 위 원 장 목사 김인규

-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해 쓰임새와 효능 무궁무진 -

최고의 '365일 신안비금천일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청정지역 신안에서 깨끗한 해수로 생산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청정지역인 전남 신안의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 깨끗한 해수와 적정 일조량으로 생산되는 신안천일염은 풍부한 미네랄로 인해 그 쓰임새와 효능이 무궁무진한 식품입니다. 한국 최고의 천일염은 바로 신안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은 고혈압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분명히 것은 고혈압에 안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네랄이 풍부한 좋은 소금(천일염)을 잘 사용하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일반소금은 미네랄이 별로 없거나 극히 미량이라고 합니다. 탈수할 때 강제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미네랄도 함께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써본 결과 음식맛이 확 달랐습니다. 재료 고유의 깊은 맛을 잘 살려주더군요.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신안천일염도 청정지역 신안의 깨끗한 해수와 적정 일조량으로 생산하고 있어 미네랄이 풍부해 그 어떤 소금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일반염과 천일염의 차이는?

1. 정제염은 100%로 염화나트륨이다. 반면에 천일염은 85% 염화나트륨, 15%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다. 칼슘, 칼륨, 마그네슘은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켜 혈압을 낮춘다.
2. 간장, 된장, 고추장, 젓갈, 김치를 만들 때 천일염을 써야 맛과 풍미가 좋아진다. 발효균이 정제염보다 천일염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천일염은 어떻게 만드나요?

천일염은 태양열, 바람 등 자연을 이용하여 해수를 저류지로 유입해 바닷물을 농축시켜서 만든 소금이다. 천일염의 주요 산지는 지중해, 홍해 연안의 각국을 위시해 미국, 인도, 중국 등 각 해양연안에 많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와 남해에서 주로 생산된다. 천일염의 염도는 일반적으로 90% 내외이고, 색상은 백색과 투명색이 있으나 한국산은 기상조건으로 염도 80% 내외의 백색이다.

천일염 만드는 방법

해수에 응존되어 있는 염분을 태양열, 풍력, 자연력에 의해 포화 해수로 만들어 결정시킨 것으로 우리나라 서 남해에서 많이 생산되며 염도는 85-88%정도이다. 계절에 따라 맛의 차이가 나며 30도 정도의 물의 온도를 맞춰 생성된 소금이 가장 좋다.

- 가격 20kg 1포 20,000원(택배비 2,000원 별도)
- 은행계좌 110-357-991640 신한은행 예금주 김옥태

할렐루야!

그동안 성원해 주신 많은 교회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 올립니다. 저희 신안(비금도) 천일염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간수가 잘 빠진 2013~2014년도산의 품질 좋은 제품으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식당 또는 교회 성도님들이 단체로 구입할 경우 택배비없이 다량구매 특별 할인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연중무휴 365일 주문접수)

오직 외길 40년 성경연구의 결정판 / 입소문만으로 들던 그 성경! 성경 읽는 눈이 확- 열립니다!!

'프리즘문맥 키아즘성경'에 감탄하실 것입니다.

목회자 초청 프리즘 문맥 키아즘 성경III 무료 공개 세미나

차원이 다른 성경! 평생에 꼭 소유하고 싶다는 성경 出刊

과연, 어느 누가? 이런 성경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프리즘문맥 키아즘성경III'을 탐내는가?

1. 이 키아즘 성경을 보고 읽는 법을 배우면, 성경이 뽕 뚫립니다.
2. 성경의 핵심(하나님의 공화)을 바로 알게 하도록 시각화에 오직 외길 40년을 바쳐서 편집된 성경으로
-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시각화로 문맥의 의도가 한눈에 잡힘.
- 수십 번 성경 통독으로 해결 못한 핵심 파악 문제가 쉽게 해결됨.
- 12색 '대화류기'로 인쇄되어 내용파악이 쉬워짐.(구속사적 사건과 인물이 시각적으로 정리되어 내용과 약이 가일층 쉬워짐)
3. 설교자의 고민, 설교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전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과 고민이 해결됩니다.
4.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대칭적 구조를 시각적으로 구별함으로써 핵심을 드러내는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행운권 추첨 : 접수순 100분 가운데 마지막까지 참석하신 분에 한하여 추첨. 3명에게 본 성경(권당 120만원 상당)을 무료증정



강사 강 유 식 목사

- 합동신학대학원 졸업
- 말씀찬송선교회 대표
- 프리즘성경연구원 대표
- 프리즘성경I 편저
- 프리즘문맥성경II 편저
- 프리즘문맥키아즘 성경III 편저



YouTube에서 C채널 세미나 - 강유식 목사의 프리즘 성경 1회 보기 - C채널 세미나 - 강유식 목사의 프리즘 성경 1회 : <https://youtu.be/8ew8Z1cSg2Y>

장호순 목사
순복음금강교회 담임

(공주지부장 순복음금강교회 장호순 목사) 010-5117-8291
매월 30일 오전 9시-오후 4시 총무 최창업 목사 010-6487-9934
(전주지부장 삼동교회 최중근 목사) 010-9930-3291
매주 월요일 오전 9시-오후 4시 총무 이은경 전도사 010-7666-1113
(대전지부장 옥합교회 유다윗 목사) 010-2308-1042
매주 수요일 오전 9시-오후 4시 총무 박경호 목사 010-6482-4110
(대구지부장 경산비로교회 김용원 목사) 010-3828-9864
매주 목요일 오전 9시-오후 4시 총무 전철근 목사 010-8258-8298

순복음금강교회
충남 공주시 소학동길 151-3
※ 순복음금강교회에서는 매월 말일 오전 11시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말일이 주말일 경우 필요로 변경됩니다.





성령대당회



지부별 찬송대회 대상 부산지방회



행복한 시간...



5분설교대회 대상 금기원 목사



우리는 하나...

‘여교역자국 여름수련회’ 은혜 가운데 마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목회자 리더십 훈련

전국여교역자국(국장 탁정신 목사) 여름수련회가 지난 24일(월)~25일(화) 1박 2일간 은혜회진리수양관에서 열려 사랑과 인내, 열정과 희생으로 땅끝까지의 복음전파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사 60:1)라는 주제아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여목회자 리더십훈련을 위해 전국에서 한 자리에 모인 여교역자들은 교단과 교회 여교역자국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한마음되어 기도했다.

24일(월) 오전 11시 30분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이틀간의 여름수련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개회예배에는 교단 총무 김병목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여교역자국장 탁정신 목사의 대표기도, 김진성 목사(동양정로교회 바리톤성악가)의 특송, 교단 총회장 진등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진 목사는 사 60:1-2 말씀을 본론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어떤 상황과 처한도 할지라도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역자들이 다 될 것”을 당부하고 “1970년대 대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이 땅에 불어 오도록 말쑥한 사역의 현장에서 더욱 성령충만한 사역자들이 다 될 것”을 강조하고 여교역자들을 축복했다.

수련회는 특강1 조용목 목사(교단 정책위원장), 특강2 김하나 선교사(중동아시아국가 선교사, 부산외대교수), 특강3 김병훈 교수(호서대 목회상담학 박사), 레크레이션 지부별 찬송경연대회, 성령대당회, 찬양, 5분 설교대회, 시상식 등의 다양한 순서가 진행되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뜨거운 성령충만의 체험을 하며 주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을 가졌다.

특강 시간에 말씀을 증거한 교단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은혜회진리교회)는 갈 1:6-10 말씀을 본론으로 한 특강을 통해 “온전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오직 성경대로의 복음을 전하고 그릇된 복음을 전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를 타파해야 함”을 당부했다. 아울러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단에 소속되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목회정보를 교환하는 귀한 사역자들이 되어야 함을 권면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이번 수련회는 폐회예배(설교 교단 전직 부총회장 정부용 목사)를 마지막 순서로 1박 2일간의 수련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 여교역자국 연회비 안내

- 1) 여교역자국은 매년 여름, 겨울 1박 2일 수련회와 두 차례의 정기모임을 갖습니다.
- 2) 각 부장, 지부장(7만원), 일반회비(5만원)로 경비를 충당하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3) 회비 및 후원금 계좌번호 : 농협 탁정신 356-1047-1351-03



특강 조용목 목사
한국신학회 이사장
은혜회진리교회 담임



설교 진등용 목사
총회장
새소망교회 담임



설교 정부용 목사
전직 부총회장
대림별교회 담임



인사말 탁정신 목사
여교역자국 국장
온선교회 담임



특강 김병훈 교수
호서대학교 목회상담학
목회상담학 박사



특강 김하나 선교사
중동아시아국가 선교사
부산외대 교수



사회 김선경 목사
여교역자국 차장
천안세계로교회 담임



여교역자국 여름수련회 사상자

- 5분 설교대회 대상 : 금기원 목사(안산시흥지방회)
- 지부별 찬송대회 대상 : 부산지방회
- 수련회 M.V.P : 김바울 목사(경기지방회)
- 수련회 최다 출석상 : 부산지방회

글로벌선진학교 미국캠퍼스 정식개교 교육과정은 한국의 교육적 특성 그대로

100억의 지구촌을 섬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대안학교인 글로벌선진학교(GVCS)가 지난달 20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미국캠퍼스를 개교했다.

2003년에 설립된 글로벌선진학교는 충청북도 음성, 경상북도 문경에 캠퍼스를 두고 있으며 정규 중·고등학교로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도 받았다.

현재 재학생은 약 1,000명이며 최근 졸업생 다수가 미국의 다트머스대, 코넬대, UC버클리, UCLA, 워싱턴대 뉴욕대 등을 비롯한 국내 및 해외의 명문대학에 진학하면서 더욱 주목받았다.

이년에 개교 된 GVCS 미국캠퍼스는 미국의 명문 기숙학교들을 모델로 삼고 185에이커(748,668.438㎡) 대지에 80여 동의 건물, 2개의 실내 체육관, 수영장, 최신 기숙사 등을 갖췄다. 교육과정에서는 한국의 교육적 특성을 그대로 살리면서 미국의 예술, 문화, 스포츠 교육이 조화롭게 융화되고, 주변의 다양한 봉사활동과 체험을 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이 알차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미국 뿐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중국 등 여러 나라와의 교류를 통해 학생들을 유지하여 세계 문화교류에



도 한몫을 담당할 글로벌선진학교 미국캠퍼스에 한인 교계인사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미주 한인교계 원로인 박희민 목사가 후원회장을 맡고 미주성시화 운동본부 상임본부장이성우 목사가 상임운영이사를 맡는다. 이들은 특히 목회자 자녀와 선교사 자녀들이 이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일을 담당한다.

지난 20일 개교 기념식에는 남진석 설립이사장과 지역 교육계 관계자, 한국전 참전용사, 한미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했으며, 후원이사 위촉식과 인공근 오래콘 주전 상원 의원, 조오규 한국 국회의원의 특별 강의도 있었다.

한국에서는 글로벌선진학교 한국캠퍼스 학생들이 미국캠퍼스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경직된 한일관계 대학 축구로 풀어요”

한남대-日조사이국제대학 한일 친선축구대회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대학생 축구선수들이 민간 외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한남대 축구부(감독 여범규)와 일본 조사이국제대학 축구부(감독 고이바 테츠지)는 지난달 21일 오후 한남대 대운동장에서 친선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기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행사를 생각하던 중 한남대측이 일본의 자매대학인 조사이국제 대학에 친선 축구경기를 제안해 성사되었다. 축구경기 에 앞서 식전행사로 한남대에서 준비한 풍물놀이 공연 이 펼쳐졌고, 한일 축구부의 펜던트 교환 및 기념촬영에 이어 한남대 김형태 총장과 조사이국제대학 구라바야시

마사로 부총장의 시축으로 경기가 시작되었다.

김형태 한남대 총장은 “이번 행사는 그에 대한 답례인 동시에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일 대학생들의 교류를 통해 한일 관계를 풀어보자는 민간 외교의 성격이 있다”고 밝혔다.

한남대는 이번 친선교류전을 위해 미즈타 노리코 조사이국제대학 이사장 등 학교 관계자와 축구부 선수 등 30여 명을 초청했다.

요네자와 코타 조사이국제대학 축구부 주장은 “축구를 통해 양국의 젊은이들이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가족세트전도 참가기

전도 혁명

그동안 전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전도법, 좋은 전도법의 훈련도 많이 받았습 니다. 현재도 1년 동안 오전에 노광전도, 삼가전도로 전 도지 주는 형태의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도열매가 보이지 않았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 라는 주님의 명령과 그리고 내 영이 살기 위해서라도 전 도하며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령게 전도하던 중 정말 귀한 분과 만남을 하나님이 주셨 습니다.

대부분의 전도 간증자들은 잘 알고 있었지만 제가 만 난 박영수 목사님은 처음 뵈는 분이었고 전도에 대한 갈 증으로 대화가 시작되어 전주 생명제일교회에서 가족세 트전도 이론과 실재를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8월13일 목요일 오후2시 생명제일교회에서 평신도와 목사님, 사모님 등 24명 정도가 모여 1시간30분 정도 세미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전도현장으로 박영수 목 사님을 따라 무작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 전도 대상은 애전 개척 12년 전부터 전도하 고 있는 불교에 가까운 미용실 원장으로 미용실문을 열 고 들어가서 축복기도 해주신다고 하면서 머리에 손을 얹지 순순하게 영접기도를 따라하며 신상명세를 교적부 에 적도록 말해주었습니다. 연이어 제가 축복기도하고 분밖으로 나와서 미용실 문에 교패(축복패)를 붙이고 기 념촬영까지 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야 어찌.. 이들도 알려주지 않는 시대인데 생년월일, 핸드폰까지 말씀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전도는 동양목욕탕에서 카운터 보시는 여주 인으로 이분도 불교인입니다. 역시 예수님 영접하고 인 적 사항을 기록하고 입구문에 교패를 붙이고 기념사진 까지 찍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0여 명이 함께 보면서 조금은 반신반의했던 가족세트전도가 이렇게 능력있는

전도인 것을 확증시켜주시는 성령님의 전도현장이었습 니다

세 번째는 수퍼마켓 주인되는 두 분과 놀러오신 한 분, 동시에 3명 모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입구문에 축복패를 붙이고 목사님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였습니다.

역시 길거리에 앉아있던 두 노인을 그 자리에서 동시 에 머리에 안수하면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교적부를 받았습니 다. 끝날 때 다른 할머니가 오시더니 나도 축복 기도 해 달라고 하여 3명을 영접시키고 교적부를 받았 습니다.

그동안 했던 전도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지고 믿음 없음을, 그리고 쉬운 방법을 몰라 열매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 영접기도가 얼마나 능력있는지 말씀대로 전도가 되어지고 빌 2:10~11 말씀대로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자백하 는 현장을 주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7시 30분 전도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약 두 시간 동안 총 24명이 영접하는 놀라운 능력전도의 열매가 있 었습니다.

전도의 혁명입니다!!

훈련이 안되면 10년 되어도 안되면 전도를 가족세트 전도는 반드시 되어진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박영수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나머지 전도훈련 받을 11주간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많은 목사님들이 오시겠 다고 오늘도 거룩한 대화로 전도자랑을 하였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길 목사(전주 생명제일교회)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해외동포두리두리사랑회 정기포럼 성료

‘나의 생애와 교육’ 주제로 엄문용 박사 강연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730만 해외동포 및 교포를 ‘흩어진 민족지원’으로 여기고 25년 동안 동포사랑 운동을 펼쳐 온 해외동포두리두리사랑회(회장 김철수 박사) 제47회 정기포럼이 지난달 28일과 29일 열렸다.

이 모임은 이동문화가 김철수 박사가 한국과 중국 이 국교를 수립하기 이전인 지난 1991년 7월에 중국 조선족자치주를 방문하여 우리말로 발간되는 <중국 조선족 소년보>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문화를 통한 동포교류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이다.

당시 순수이동문화 월간지 <월간 이동문화> 발행인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김철수 박사는 재중동포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문화예술계의 대표자들과 만나 한중 문화교류를 제안하여 연변작가협회와 중 국조선족소년보사를 방문 상호의견을 교환한 뒤 현 장에서 자매결연서를 작성 민간인으로서의 최초의 교류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재중동포 이동문화가들과 국내 이동문화가 들의 대표작품을 모아 <한·중·아동문학선집>1,2,3권을 출판하여 우리 민족의 아동문학사를 정리하는 사업을 필두로 동포작가들을 위해 <백두아동문학상>, <도라지문학상>, <옛별소년문학상>, <옛별교원수필상>, <두만강 꼬마작가상> <백두어린이 글짓기상> 등을 제정 후원하며 해마다 중국현지를 방문하 여 시상하고 격려하는 사업을 전개해왔다.

한편 독립투사 유가족들을 돕기 위한 운동을 펼



쳐 김좌진 장군의 친 딸 김강석 여사와 손녀 위훈련 외 증손녀 김희 씨에게 생활비지원 및 장학금을 지원 하고 연길시립도서관과 용정 송원도서관에 한글로 된 교양도서 2만여 권을 증정, 사라지는 민족 후대들 에게 글을 통해 민족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해온 것이다. <중국동포사랑방분단>이란 이 름으로 10여 년동안 이 사업을 해오던중 지난 2004 년 제22차 중국동포사랑방분단의 중국방문 일정이 끝나고 한시적인 사업이 끝나면 해체되던 모임체를 정기적인 모임체로 항상 발전시키기 위해 해외동포 두리두리사랑회란 명칭으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 르고 있다.

동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을 모아 독립투사 후손의 장학금지원은 물론 최근에는한국과 미국에 유 학생으로 나와 있는 동포후대들을 위한 장학금지원사

업도 병행해오고 있다 또한 <월간이동문화>지를 통해 동포후대들을 분단에 등단시켜 우리글을 활발하게 사 용하며 가꾸고 빛낼 수 있도록 직접 지원하고 있다.

제47회 정기포럼의 주제 강연을 맡은 강사 엄문 용 박사는 “교육 없는 백성은 미래가 없고 특히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730만 해외교포 및 해외동포들에게 나라사랑과 자기 발전을 위한 제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시스템이 필 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철수 회장은 25년 세월동안 변함없이 이 사업을 위해 동참해주신 회원들의 정성과 뜨거운 동 포사랑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더욱 실제적이고 효과 적인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동포두리두 리사랑회가 걸어 온 지난 25년 동안의 발자취를 한 권의 책으로 출판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사토 마사루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장은 “금년은 양국 국교정상화 50주년의 뜻 깊은 해”라면서 “아려움도 있지만 한남대와 조사 이대학처럼 우리의 미래를 담당할 젊은 세대들이 교 육과 스포츠 등의 교류를 통해 50년 후, 100년 후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축하인사를 전 했다.

한편, 한남대는 이날 축구경기에 앞서 오전 11시 56 주년기념관 중회의실에서 조사이국제대학 미즈타 노 리코 이사장에게 명예교육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성회 부흥사회

새 가족 모집 및 자비량 부흥성회 신·청·안·내



회장
신재영 목사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종교다원주의가 한국 교회를 흔들고 있는 영적혼란의 시대에 뜨거운 사명감으로 “예수 외 에는 구원이 없다”는 확고한 진리를 말씀을 힘 있게 선포하며 이 땅 의 복음화와 한국교회의 신앙회복 및 우리교단의 부흥 더 나아가 세 계선교를 위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흥사회 임원으로 활동하실 분과 신임회원을 모집합니다.

부흥사회서의 자질과 사명은 있으나 기회를 얻지 못해서 활동하 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로 연락 주시면 부흥사 연수후 함께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믿고 기도로 준비된 부흥사들을 중심으로 말씀과 찬양, 그리고 뜨거운 기도를 통해 성도와 교역자가 뜨거워지고 교회가 부 흥하는 성령 충만하고 행복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해온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은 계속 이어져나갑니다.

우리 교단 교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성도들의 신앙회복에 도움 을 주어 함께 성령행전의 역사를 써나가기 위해 준비한 자비량 부 흥성회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 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와 목회자분들께 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기도로 준비하시어 감동과 열정과 기쁨으로 인도하는 자비량 부흥성회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20명 미만의 도시 미자립교회 및 농어촌 미자립 교회의 자비량 부흥성회 신청을 기다립니다.

문의 : 회 장 신재영 목사 010-4420-8650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010-3698-5764

“영광과 찬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2015 청년봉사선교회 찬양발표회’ 은혜 가운데 열려

은혜와진리교회(담임 조용목 목사) 청년 봉사선교회는 지난달 29일(토) 오후 안산성전 대성전에서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나”(야 8:13)라는 주제로 2015년 찬양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오후로 9회를 맞아 안산성전 청년봉사선교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찬양발표회에 안양 수원, 안산, 과천, 부곡, 판교, 시화, 영통, 인천, 부천, 김포, 울진, 동탄성전의 13개 청년 성가대와 찬양팀이 출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각 성전에서 모여든 많은 청년과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다.

먼저 안산성전 하늘소리 찬양팀의 인도로 함께 찬양하고 김정훈 목사의 설교로 예배를 드린 후, 이어서 성가대와 중창단들이 저마다 특색 있고 아름다운 22곡의 찬송으로 주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을 이끌었다.

출연한 청년들이 모두 나와 복음찬송가 ‘이 믿음 더욱 굳세라’를 합창하며 피날레를 아름답게 장식할 때에 성도들도 모두 일어서서 함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하였다.

청년들에게는 성도가 되어 신령한 노래



교역자·사모 하계수련회…“범사에 감사하자”

전라지방회

전라지방회(회장 김영식 목사)는 지난달 17-18일 이틀에 걸쳐 하계수련회를 광양 백운산에서 개최하였다.

첫째 날 11시에 광양순복음교회(최형택 목사)에서 8월 월례예배를 드렸다.

지방회 총무 정찬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서기 임종호 목사의 기도에서 시작되어 부회장 최남성 목사는 본문(사편 50:7-23)을 토대로 ‘범사에 감사하자’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부자와 나사로’를 예로 들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자, 감사와 신앙은 비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교단의 정책위 위원들과 의장, 그리고 총회장, 임원들을 위해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하였고 전라지방회의 교역자들과 시무하는 교회들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나서, 지방회 중경회장 최형택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를 마친 후 광양순복음교회의 섬김으로 맛있는 점심식사를 하고 광양 백운산 옥룡계곡의 더 자연펜션으로 이동하였다.

지방회 교역자와 사모들은 이틀을 같이 보내며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면서 담소를 나누고 숲 속으로 난 길을 따라 산책도 하

며 그간 목회하느라 쌓인 피로를 말끔히 씻 진하기로 하고 이틀간의 하계수련회를 마



예하성부산신학교 2015년 2학기 개강예배 드려

고신대 이상규 교수 초청 ‘한국교회사’ 주제 특강도



예하성부산신학교(학장 고영권 목사)는 지난 1일(화) 오후 6시 동 신학교가 위치한 순복음빛된교회(담임 고영권 목사)에서 2015년 2학기 개강예배를 드

리고, 이상규 교수를 초청해 ‘한국교회사’를 주제로 한 특강시간을 가졌다.

1부 개강예배는 교무처장 박용호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이사장 한명집 목사의 기도, 학장 고영권 목사의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란 제목의 설교, 김보미 교수의 특주, 고문 유봉수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2부 특강시간에는 고신대 이상규 교수가 ‘한국교회사’를 주제로 강의했다. 예하성부산신학교의 교직원 및 교수는



다음과 같다.

이사장 한명집 목사, 학장 고영권 목사, 교무처장 박용호 목사, 교무과장 정환무 전도사, 바울서신 오경덕 목사, 역사서 조병희 목사, 대선지서 박용호 목사, 신약학 정영진 목사, 구약개론 조정화 목사, 시가서 조은혜 목사, 시복음서 고영권 목사, 소산지서 한순남 목사



월례회 및 하계수련회, 교단·지방회 발전 위해 기도

대전지방회

대전지방회(회장 정윤기 목사)는 지난 8월 31일-9월 1일까지 이틀간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선유도에서 지방회 월례회와 하계수련회 및 단합행사를 가졌다.

이날 예배에서 중경회장 엄기설 목사는 답후 2:20-21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회자’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여 쓰임에 합당한 목회자가 되라’고 권면했다. 설교 후 참석자들은 나라와 교단, 그리고 지방회 발전과 부흥을 위해서 한목소리로 기



도했다. 예배를 마친 대전지방회원들은 선유도의 자연을 도보로 관광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의 비경과 아름다움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

9월 월례회, 부부수양회 준비상황 점검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한명집 목사)는 지난 1일(화) 오전 11시 은혜총만교회(담임 홍현철 목사)에서 9월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회계 김태주 목사(순복음부산우리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재무 김경옥 목사(순복음하늘소망교회)의 기도, 부산지방회 여목부(전국여교역자회) 전양대회 대상 기념의 특송, 강광수 목사(순복음아베교회)의 행 2:1-4의 성경봉독, 박영옥 목사(순복음참좋은교회)의 ‘성령의 불을 받자’란 제목의 설교, 통성기도, 안병삼 목사(순복음창성교회)의 헌금기도, 총무 조정



화 목사(순복음주님의교회)의 광고, 정기영 목사(순복음세움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후 후 은혜총만교회 홍현철 목사가 참석자들에게 정성껏 오찬을 대접했다.

이러진 월례회에서는 각종 보고를 받은 후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개최할 부부수양회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한편 이번 부부수양회에는 36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새말중앙교회 입당감사에배

일시 9월 12일(토) 오전 11시

장소 새말중앙교회(담임 김영배 목사)
033)342-1017, 010-7287,1017 010-2616-1017



강사
음동성 목사
동교동 교회



담임
김영배 목사
새말중앙교회 담임



새말중앙교회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전재로 105(오원리 752-9)

남일공예

50년 전통의 남일공예입니다.

남원 전통상, 목기, 교자상, 찻상, 병풍 판매합니다.

본 제품들은 남일공예에서 직접 생산하여 도매로 판매합니다.



교회 예배상 주문제작
생산자 직거래라 비용이 저렴합니다

좋은 원목으로 모든 공정을
남원에서 직접 제작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 오시는 길 전북 남원시 쇄고개로 219(어현동 470-16)
● 상담전화 063-632-3332, 8838 / 010-3651-7838 ● 택배판매 가능

한국창조과학회 일본서 ‘성경과 과학 컨퍼런스’ 개최

세미나와 함께 일본현지의 창조과학 탐사지 탐방

일본 외키야마에서 창조과학 캠프인 ‘성경과 과학 컨퍼런스’ (참고 사이트 www.genesisjapan.com)가 최근 개최됐다.

일본의 창조과학 사역을 하는 단체들이 연합해 개최한 동 행사는 일본복음화를 위해 한국창조과학회 이은일 회장(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과 이경호 교수(인하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가 강사로 섬겼다.

일본인들 국민성이 이성적이고 지성이 먼저 변해야 복음을 받아들이기 쉽다는 사실 때문에 일본 복음화 전략에 창조과학 콘덴츠가 효과적이라고 평가돼 왔다. 성인 및 학생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행사는 세미나와 함께 일본 현지의 창조과학 탐사지를 함께 탐방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은일 회장은 ‘인체 창조의 비밀’이란 주제로 강의를 하면서 예방의학과 환경의학을 연구하는 의사로써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체와 우리를 살게 하신 이 땅이 얼마나 조화롭게 설계됐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러한 조화로우름을 깨뜨린 결과 나타난 질병과 환경오염을 회복하는 것에 빗대어 하나님과의 관계의 조화를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강하게 선포했다.

이경호 교수는 ‘노아의 대홍수 방주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특히 이경호 교수의 경우 연구원 시절 노아 방주의 안전성을 직접 실현해 성경에 기록된 방주의 설계 비율이 가장 우수한 안전성을 가진 비율임을 밝힌 담당 연구원이었기에 노아 방주의 안정성이 노아홍수 사건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임을 강의를 통해 확실하게 증거했다.

한편 한국창조과학회가 일본 창조과학 지역자들과 학술적 교류를 가진 것은 창조과학회 초청기 김영길 초대 회장 때부터로 당시 일본의 대표적인 창조과학자인 미사비 우사미 박사 등과 친밀한 교류를 가졌었다.

그러나 일본은 교회가 창조과학 사역을 든든하게 지원하지 못하고, 창조과학 단체들도 지역별로 여러 단체들이 활동하면서 구심점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온누리교회가



시작한 새로운 문화선교 ‘러브소나타’였다. 故 하용조 목사가 일본 교회의 부흥과 전도를 위해 2007년 시작한 러브소나타는 대형 문화집회를 통해 일본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증진시키고, 지역별로 일본 교회가 연합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다.

또한 일본 CGNTV를 함께 시작해 일본 교회의 여러 교단으로 나누져 있던 목회자들이 서로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다. ‘러브소나타’가 진행될 때 교회 부흥 세미나와 함께 가정세미나 또는 창조과학 세미나가 진행됐다. 무엇보다도 故 하용조 목사가 일본 창조과학 지역의 부흥을 위해 거액의 현금을 전달해 Love Creation이라는 일관된 중심의 창조과학 지역단체를 만들고 지원하였다.

이 Love Creation이 중심이 돼 일본의 창조과학 단체들의 연합인 Japan Creation Forum(이하 JCF)이 2014년 창설되고, 초대 회장에 Genesis Japan 대표인 우사미 미노루 목사가 취임했다.

한국창조과학회는 2014년 12월 JCF와 학술교류 MOU를 체결하고 2016년 아시아 창조과학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창조과학회가 일본 창조과학 세미나를 섬기는 것은 온누리교회가 일본 교회와 함께 주관하고 있는 러브소나타 프로그램 뿐 아니라, 직접 일본

Genesis Japan이 주최하는 ‘성서와 과학 컨퍼런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성서와 과학 컨퍼런스’는 성인 및 청소년들을 위한 창조과학 세미나와 일본 내 격년의 현장을 직접 탐사하는 캠프 형태로 매년 진행되고 있다.

2013년 8월 동경에서 2시간 떨어진 사이타마 켄지부에서 열린 ‘성서와 과학 컨퍼런스’에서는 이은일 교수가 ‘암력한경과 나의 창조과학연구’, 정우성 이사의 ‘한국 차세대 창조과학 사역’에 관해 발표해 일본 창조과학 지역자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주었다.

2014년에는 일본 JCF와의 학술교류 MOU를 체결하면서 ‘성경과 현대과학’ 세미나를 동경 요도바시교회에서 진행했다. 일본 측 강사로 안도 가즈코 교수와 우사미 미노루 목사가 한국 측 강사로 한윤봉, 최승철, 이은일 교수가 섬겼다. 강의 내용은 한윤봉 교수 ‘과학법칙과 창조주’, 최승철 교수 ‘기존의 사고의 틀을 넘어서기 위한 창조과학 5가지 정보’, 이은일 교수의 ‘가려진 진실 공룡’이었다.

올해는 이번 ‘성경과 과학 컨퍼런스’ 뿐만 아니라 앞서 열린 창조과학 특별집회(오사카 온누리교회)를 통해 많은 성도들과 불신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창조과학회 02-419-6465
creation@creation.kr

사설

남북통일, 기도만이 희망이다!!

지난 8월 22일 오후 6시부터 8월 24일 자정까지 1,2차 도합 41시간 동안 저 휴전선 관문점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린 기간은 공교롭게도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오후 시간부터 주일 23일을 지나 월요일 자정에야 협상이 끝났다.

온 국민들이 숨을 조리며 회담이 잘 타결되어 한반도의 전쟁 먹구름이 사라지기를 고대했었다. 그런데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우리 대통령과 북측 김정은을 제외하고는 ‘최고위급’이라고 하는 정부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홍영표 통일부 장관 그리고 북 집단의 소위 인민군총정치국장 황병서와 통일선전부장 겸 노동당 비서 김양건 등 4인 회담 결과 나온 합의 사항은 “북측은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한 군인들의 부상에 유감을 표명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합의를 끌어내느라고 남북의 최고위급 4인이 날 수로는 시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더니 한편으로는 미흡하지만 남북합의로 극한 대립과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에 안도의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휴전선 군사분계선 남쪽에 물레 침투해 ‘목함 지뢰’를 매설하고 그곳을 수색하던 우리 국군병사 하제헌 하사(21)가 양측 무릎 아래 다리를 절단당하는 치명상을 입었고, 김정원 하사(23)는 오른쪽 아래 다리가 절단 되는 치명상을 입었다. 두 사람은 ‘청춘이 만리’ 같은 아름다운 연령이다. 다리 없이 살아야 하는 이중고를 떠난게 된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비정한 살상 행위에 대해 조금도 뉘우침이 없음을 고사하고, 북에 돌아가서는 왈 “이번 북한 긴급 접촉을 통해 남조선 당국은 근거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일방적인 행동으로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동을 벌였다”느니, “남측이 사죄해 협상이 타결되었다”느니 새빨간 거짓말을 서슴없이 토해냈다.

북측의 황 김 두 사람은 그 기나긴 시간 얼굴을 맞대고 마주 앉아 거짓으로 일관하면서 비굴함도 느끼지 못하고, 한사코 잡아 댄 수 없는 것을 것이다. 배후에 생살여탈권을 쥐고 저들의 군주 김정은이 버티고 있어 협상이 잘 못 되면 처형당할 위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을 것이란 추측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김정은을 포함하여 모두가 한 통속이긴 마찬가지다. 이런 저들과 마주 앉아 우리 대표들이 “우리는 모른다”고 잡아떼는 쪽두라시들에 맞서

심장의 피가 거꾸로 솟음을 달래며, 무려 41시간을 버티며 “유감”이란 한 마디라도 얻어 내려고 인내에 인내를 거듭했으니 그 기막힌 심장이야야찌헤아릴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런 때에 필요한 것이 성도들의 기도 후원이고 주님의 안보하심이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 장군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말렉이 이겼다(출17장). 남북고위급 회담을 진행하던 그 토요일과 주일을 거치는 긴 긴 낮과 밤 동안,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모세의 손을 들고 있었던 아론과 출처럼, 우리 회담 대표들을 주님께서 도와 주셔서 기어코 저 무지배한 사회주의 조선노동당 괴수들의 거짓과 위선과 비인간성을 이기고 사죄와 재발방지와 젊은 국군 병사들에게 죽음보다 더 무서운 중상을 가한 책임을 인정하도록 소리치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유감” 운운하는 회담 결과가 나와 많은 유감이지만 실체를 분명히 안지하고 저들의 계략에 다시는 능력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더 철저한 안보태세를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나라를 지켜주시길 것을 기도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 무슨 배신을 당할지 모르지만 다시 남북 대화가 시작되고 우리 대통령이 중국 국가 원수와 나란히 서서 중국군 열병식을 사열하며 한·중 우의를 다지는 진풍경도 이루어졌다. 우리 성도들은 이번 남북고위급회담 과정과 결과를 접하고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기도가 부족하다는 뼈아픈 자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노부구세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 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며,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단 4:1-3)

국가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 후원이 시급하다. 어느 때 일지 모르는 한반도의 통일은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눈물과 통일의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야말로 “도적같이” 도래할 것이 틀림없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남북통일의 그 “때”를 결정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CTS평생교육원, 특별한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홈바리스타, 쿠키플레이, 캘리그래피 과정

창사 20주년을 맞는 순수복음방송 CTS기독교TV(회장 김경철, 이하 CTS)는 ‘CTS 평생교육원’의 특별한 교육과정 △홈바리스타 △쿠키클레이지도사 △캘리그래피 과정에 대한 수강생을 모집한다.

국내 바리스타 1호로 알려진 이동진 가베두림 대표가 이론과 실습 강의를 진행하는 ‘홈바리스타 과정’은 9월 10일, 11일, 17일 3일간 진행되며, ▲커피학개론 등 이론교육 ▲실무교육 ▲바리스타 자격시험(희망자)으로 이루어져 있다.(수강료 재료비 포함

12만원, 자격증시험응시료 별도)

오는 10월 6일부터 14일까지 매주 화, 수요일에 진행되는 ‘제2기 쿠키플레이 지도자교육과정’은 요리활동과 아동교육이 결합된 새로운 방식의 놀이수업으로, 쿠키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력과 오감을 발달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감 향상, 스트레스 해소 등 심리적인 부분을 터치해 상담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 아이들은 물론 성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문화센터 및 교회 문화교실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수강료 재료비 포함 15만원, 자격증시험응시료 별도)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캘리그래피 과정’은 10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8주 동안 매주 화요일 진행되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젊은 층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한성욱 캘리그래피가 강사로 나선다.(수강료 재료비 포함 23만원)

교육과정에 대한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www.cts.tv)나 CTS평생교육원으로 문의하면 된다.(02-6333-1166)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채원위원장 조옥목 목사
- 발행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150-105 서울시 영등포구 영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안내

Wedding

- 대 상 : 결혼 적령기 남녀 성도
- 신 청 : ㉠ 센터(안양성전 기독교연합신학연구원 건물 2층)에 직접 신청
㉡ 각 성전 교구장 통해 신청
㉢ 본교회 홈페이지(www.gntc.net) 통해 온라인 신청
- 상담시간 : 매 주일 오전 11시~오후 6시
매주 수요일 낮 12시~오후 6시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458-5(기독교신학연구원 건물 2층)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 사무실 031-422-3735, 상담소장 010-4377-2842)

은혜와진리교회 부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는 결혼 적령기 크리스천 미혼 남녀가 주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돕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께서 기뻐하시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감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에 신청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 및 개인 정보는 담당자만 볼 수 있고 비밀이 보장되며, 일체의 비용도 없습니다. 본교회 성도는 물론 본교단 산하 교회 성도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5학년도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사안수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본 교단 소속 사역자들은 목사안수를 위하여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자질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를 양성한다.

● 원훈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자

1. 모집학과 및 지원자격

학 과	과 정	수업 연 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 (M.M) (Master of Ministry)	2년4학기 40학점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각1통)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 ②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③ 추천서
- ④ 반명함판 사진 6매(3개월 이내 촬영)
- ⑤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⑥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여부

3.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4.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 ② 원서교부처: 본 대학원 행정실
- ③ 원서접수: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 ④ 면접: 개별통보
- ⑤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5. 전형료 및 입금계좌번호

* 전형료 50,000원 계좌번호 농협 302-0928-2133-91(예금주 임종달)

6.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M Master of Ministry, 교단인정) 학위를 수여하고 교단 목사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 ②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에 한다.
- ③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발견되면 합격을 하더라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④ 기타 상세한 문외는 본 대학원 행정사무실로 문의 바람.
- ⑤ 접수방법: 지원자는 대학원 홈페이지(www.agpgs.or.kr) 자료실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E-Mail, 또는 우편으로 접수. 전형료는 계좌에 입금.

● 입학상담 및 문의

☎ 직통 (02)2677-0692~3, FAX (02)711-995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홈페이지: www.agpgs.or.kr, E-Mail: agpgs@hanmail.net
150-1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5학년도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주·야간) 모집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오순절 신학의 정립과 21세기의 사도행자적인 교회 설립을 위해 헌신할 거룩하고 충성된 일꾼을 양성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고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교육목표

본 신학교는 아래와 같은 교육목표에 따라 교단의 일꾼들을 양육한다.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육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④ 선교현장의 실천적 자료개발과 제공

● 교훈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자

1. 신·편입생 지원자격

학 과	수업 연한	지원자격
신입생 (신학과)	4년 8학기 12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편입생		4년제 대학졸업자는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는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을 원할 경우 해당 학년별로 편입가능

2. 제출서류(각1통)

- ①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 · 성적 증명서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건강진단서(HIV 포함)
- ⑥ 반명함판 사진 6매(3개월 이내 촬영)
- ⑦ 신앙고백서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본 신학교 행정실로 문의
- ② 원서교부처: 본 신학교 행정실 및 신학교 홈페이지
- ③ 원서접수: 본 신학교 행정실로 문의
- ④ 필기시험 및 면접: 개별통보
- ⑤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 ⑥ 합격자 등록기간: 개별통보
- ⑦ 전형료: 30,000원
- ⑧ 등록계좌번호: 농협 302-0928-2133-91(예금주 임종달)

4.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본교 행정실 방문

● 입학상담 및 문의

☎ 직통 (02)2677-0692~3, FAX (02)711-995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홈페이지: www.agpgs.or.kr, E-Mail: agpgs@hanmail.net
150-1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Holy Spirit Camp

美AG 한국총회 성령충만 수련회

주제: “그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14)

○ 강사진



美AG 한국 총회장
정영효목사



미국뉴욕프리스터치담임
김남수목사



예하성 총회장
진동용목사

일시 2015년 9월 21일(월, 오전)~24일(목, 점심 후 하산) 3박4일

장소 미국 하나님의성회 총회 수양회관

Assemblies of GOD Korean District Council
주소: 7699 Ninth Street #04 Buena Park CA 90621
전화: 714-670-9200(임 총무)
미국 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 성령충만 수련회가 오는 9월 21일(월)부터 24일(목) 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아름다운산장에서 개최되는 것과 관련하여 참석자들이 많아 장소를 미국 하나님의성회 총회 수양회관(캘리포니아 소재)에서 개최하기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최 미국하나님의성회(한국총회)

후원 미국하나님의성회(한국총회) 교회성장위원회
미국하나님의성회(한국총회) 국내선교위원회
미국하나님의성회(한국총회) 여교역자회

○ 설교 강사 및 각종 강사

- 미국하와이 | Rany L. laea Sr Pastor(하와이예비치교회, 하와이성령캠프강사)
- 미국텍사스 | KEITH MILLER Pastor(www.sfwm.org)
- 美AG/한국총회중경총회장/김남수 목사(프리스터교회)
- 한국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진동용 목사(새소망교회,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부총재)
- 중경총회장/김영길 목사(감사한교회)
- 총회장/정영효 목사(뉴욕순복음갈보리교회)
- 미국하나님의성회(한국총회) 교회성장위원장
- 미국하나님의성회(한국총회) 국내선교위원장
- 미국하나님의성회(한국총회) 여교역자회 외